한솔LCD, LED BLU 시장진입 성공

키움증권, 3/4분기 영업이익 26.3% 증가 ... 삼성전자·Sony 거래선 확보

키움증권은 9월11일 한솔LCD에 대해 영업실적에 비해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7000원을 유지했다.

김병기 연구원은 “3/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한 2491억원, 영업이익은 26.3% 늘어난 77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LCD 시장 악화에도 삼성전자, Sony 등 선두기업을 거래선으로 확보하고 있어 출하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솔LCD는 전방산업의 하락 사이클에 더욱 돋보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거래선 기반이 탄탄하고, 인버터 등 백라이트유닛(BLU) 핵심부품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2/4분기부터 LED BLU 시장진입에 성공하는 등 산업 트렌드에 대한 빠른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회사인 한솔라이팅과 슬로바키아 법인은 9월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솔LCD는 전방산업 악화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영업실적은 개선되고 있어 매수 기회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1>